



#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18년도 제5호



“우리는 이러한 영적 투쟁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강력한 무기, 다시 말해  
믿음으로 충만한 기도, 하느님 말씀의 묵상,  
미사 참여, 성체 조배, 고해성사, 자선 활동,  
공동체 생활과 **선교 활동**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제162항)

#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미사 예물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길 때면 언제나 굉장히 기쁩니다. 세계 곳곳에서 21초마다 한 번씩 ACN 후원자 여러분의 지향으로 미사가 봉헌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체의 힘을 믿는 것은 단지 주는 사람의 신앙뿐만 아니라 고 통받는 우리의 형제자매를 향해 뻗은 사랑의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기도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로부터 많은 사제들이 사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극심한 빈곤 때문에 신음하는 공동체를 위한 물질적 지원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청년 시노드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로서 성령의 도움을 얻어, 청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길을 담대히 걸어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에게 다음 세대의 성장은 때로는 슬픔을 주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미사 지향으로 신앙과 희망의 횃불이 타올라 다음 세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지난 10월은 묵주기도의 성월이자 특별히 '세계 선교'에 봉헌된 달이었습니다. 묵주기도와 세계 선교, 이 두 가지는 별다른 공통점이 없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가톨릭의 모든 선교는 전적으로 기도를 통해 그 생명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는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재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그 어느 시대보다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영이 우리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다스리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의 영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된 영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세계를 상대로 선교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파견하시기 전에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는데(마르 6,7 참조), 곧 세상에서 '구마'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새로운 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ACN 설립자 베렌프리트 신부님은 가난하고 박해받는 이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과업이 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고양시키고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의 도덕적 타락을 막아 준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긍휼은 우리를 무관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랑의 행위로 이끌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빛과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기도하고 선교사로 활동하겠다는 결심이 언제나 영적 투쟁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에게서 내적 동력과 사도적 열성, 담대함 등을 빼앗아 가길 원합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은 교황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에서 "열성의 부족은 피로나 환멸, 타협, 무관심, 무엇보다도 기쁨과 희망의 결여로 나타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복음화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지 등의 변명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알게 된 기쁜 소식을 기쁘게 선포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를 해치는 일입니까? 어쩌서 거짓과 오류, 타락, 외설만이 대중 매체의 파괴적인 전파와 법의 허용, 선한 이들의 소심함과 악한 이들의 뻔뻔함에 힘입어 대중 앞에 제시되고 잘못 주입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칩시다. 그러면 최초의 선교자이신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진실된 영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와 사랑의 행위를 통해 선교사들이 '전선에서' 그릇된 영에 물들거나 자기 자신만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오직 '가장 위대하고 오래된 가르침'이신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돕시다.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지원



콩고민주공화국과 우크라이나에서 ACN 후원자의 예물로 봉헌되는 미사

미사 예물은 미사 전례 때 특정한 지향을 위해 바치는 금전입니다. 은총을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예물을 바치는 사람은 미사를 통해 내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관습은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사 예물의 적법한 수령, 관리, 사용에 관한 규정은 교회법 제945항부터 제958항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각 교구의 교구장이 그 규정이 지켜지는지 감독합니다.

ACN은 지난 50년 동안 미사 예물을 전 세계에 나누어 왔습니다. 특히 사제들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골고타 언덕을 오르시는 곳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ACN 후원자 여러분이 봉헌한 미사 예물로 흑독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교회에 적대적인 지역의 사제들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중서부 지역의 이농고 교구장 필리프 응키에레 케나 주교는 미사 예물이 사제들의 선교 활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살인과 약탈에 굶주린 무법자들의 전횡이 만연해 있고 부패가 법률을 있습니다. 또한, 이단과 오래된 미신이 그리스도인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일부다처제와 윤리적 타락이 일상화된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이 강론을 통해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진실된 삶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미사 예물은 사제들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담보합니다. 케나 주교는 이농고 교구 사제들이 미사 예물 덕분에 신자들에게 더욱 헌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구인 이곳의 재정은 계속 악화하여 이제는 최소한의 생존만 가능한 지경입니다. 이농고 교구 사제 109명 중 대부분은 미사 예물 말고는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ACN은 미사 2,400대 즉 2,400회에 걸친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제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교회 오데사 총대주교 대리구에서도 사제 43명을 위한 예물 봉헌이 1,000차례 있었습니다. **ACN은 이곳의 사제뿐만 아니라 사목 활동과 3년짜리 선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미 성과를 거두었고 신부들은 활동적이며 열정적으로 청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회의 여름 캠프를 열었고 신앙 학교는 여러 번 만원을 이루었습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도 여섯 차례 있었습니다. 미사 예물은 이곳의 사제들을 자유롭게 하며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일을 돕습니다.

교부 십자가의 성 요한은 사람이 하느님을 찾는 것 이상으로 하느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성체성사는 참된 만남의 터전입니다. 이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 예물을 봉헌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지원'으로서 각별한 깊이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도움의 손길입니다.





## 선교하는 젊은이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교회는 젊다”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한 세계청년대회를 후임 교황들이 새로운 전통으로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청년을 주제로 한 시노드가 개최되었습니다.



브라질 청년 선교사들이 활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청년은 당연히 미래의 주제입니다. 선교에 관한 한 이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질** 아마소니아 주의 콘세이상 두 아라과이아 교구에는 청년 15만 명이 살고 있지만 이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제는 몇 명 없습니다. 현지 말을 할 줄 알고 젊은이들의 고통과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제는 더욱 부족합니다. 이에 교구 차원에서 10년 남짓 전부터 다른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교 가르침과 가치를 알려 줄 평신도 청년 선교사를 양성해 왔습니

브라질



다. 6주간의 집중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마을을 돌면서 사제들과 학교를 찾아가고 변두리 마을까지 방문합니다. 올해 청년 선교사들이 교육의 중점으로 둔 것은

평화와 폭력 극복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에도 돈은 필요합니다. **청년 선교사 8명에게 필요한 교통비, 생활비, 교육 기자재비는 1344만 원에 이릅니다.** 이마저도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마태 12,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알로타우시테이아 교구에서는 젊은이들이 본당의 청년 사목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워크숍을 예로 들면 하느님의 선물인 몸의 신학이나 SNS를 복음화에 활용하는 법 등을 알려 줍니다. 교육을 받은 이들은 생선이나 과일 같은 것을 수업료로 지불합니다. 다른 지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ACN은 이 교육 사업에 필요한 743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 신학생들의 꿈

**가나** 북동부 엔디 교구 신학생 네 명이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의 삶을 꿈꾸며 사제 서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라이저 나코바 신학생은 “첫 번째 꿈은 물론 서품을 받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제 꿈을 막을 순 없습니다.”라며 성사를 베풀 사람들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가축을 치는 일을 거둬들고 주민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며 나이 들고 병 든 이가 성체를 영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교도소에도 가겠다”라는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그곳에 하느님의 자녀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저스티스 그마바그난 신학생은 사목 활동 외에도 양봉업자 지원을 꿈꿉니다. 조셉 느웨야다 신

학생은 “선하고 건강한 신앙심은 온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며 교리 문답과 예화를 통해 젊은이들을 하느님께로 이끌고자 합니다. 조셉 메그베냐 신학생은 다년간 신학을 공부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열게 하고 싶다”라는 겸손한 꿈을 간직해 왔습니다. 가난한 엔디 교구에서는 이 네 명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관할 지역이 워낙 넓고 사막화되어 이들이 사제로서 세상에 나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토바이가 한 대씩 필요합니다. **교구의 꿈은 바로 오토바이 구입 비용 810만 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ACN이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밀알 하나의 가치



허만 레스야르트 신부(예수회)는 사람들에게 “발루”라고 불렸습니다. 곰이라는 뜻의 별명으로 그의 강인한 외모를 친근하게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 날은 1964년 3월 24일 성 목요일이었습니다. 인도 게르다의 이슬람 사원에 광분한 군중을 피해 수많은 무슬림들이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검은 수염을 기르고 흰 제의를 입은 허만 신부가 담장에 오르며 모습을 드러내자 과격한 힌두교 신자들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허만 신부는 강론으로는 이 성난 무리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중대한 죄입니다. 악한 행위를 그만두십시오! 그만두십시오! 그만두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허만 신부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어느 힌두교 신자가 뛰쳐나와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소리치며 주먹만한 돌을 던진 것입니다. 얼굴에 돌을 맞은 허만 신부는 그 충격으로 땅에 떨어졌고 사나워진 군중은 다시 일어나려는 신부를 둘러싸고 때리며 그의 몸 위에서 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원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날 천 명이 넘는 사람이 집단 학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허만 신부는 겨우 마흔두 살이었지만, 그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플랑드르 출신 예수회 사제가 인도 북동부 자르칸트에서 소수 집단인 이슬람 신자들을 위하다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곧 세상에 알려졌고, 인도 중앙 정부가 군대를 파견해 혼란했던 지역을 다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내무부 장관은 전국으로 송출되는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형제적 사랑 그리고 모든 이에 대한 우호를 행한 가장 숭고한 희생”이었다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인도의 독립 운동가 네루와 그의 딸 인디라 간디도 허만 신부에게 공식적으로 조의를 표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평화의 씨앗입니다. 선교는 단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허만 신부는 짝 움켜진 손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상의 명에 어떤 식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지, 다른 이를 실질적으로 도우며 성실함과 인내가 타인을 어떤 식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에는 사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곰이라고 불렸던 허만 신부는 언제나 힘이 넘쳤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이들을 위해, 본당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허만 신부의 골고타 언덕이 된 곳 근처에는 경당이 세워졌습니다. 한때 게르다의 작은 성당에 불과했던 이곳은 지난 10년간 찾아오는 신자들이 계속 늘어나 순교자의 무덤을 참배하러 온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곳을 관리하는 두 명의 사제와 우르술라회 수녀 세 명은 새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본당 살림은 전기와 포장 도로가 부족할 정도로 어렵지만, 필요한 비용의 1/5을 자력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5에 해당하는 4800만 원은 ACN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CN은 이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새 성전을 건립하며  
허물어질 지금의 경당



허만 신부의 무덤에서  
빈센트 바르와 주교



인도



허만 신부의 희생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도  
모범이 됩니다



## 사랑의 끈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내어 주는 내 몸이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시리아**보다 고통의 언덕에 더 근접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떠날 수 있는 이는 모두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시리아 국민의 과반은 난민이 되었거나 국내에서 실향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폐허와 굶주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제들 또한 흠스, 하마, 알레포 등 폐허가 된 도시에 남았습니다. 이들은 말과 행위로 희망을 전하며 곁에 있음으로써 신자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 냅니다.

시리아의 사제들은 한 달에 17만 원 정도로 생활하면서 가난하고 아픈 이들에게 나누어주기까지 합니다. 힘겨운 상황에도 사제들의 증언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에서 나옵니다. 마로니트 가톨릭교회 다마스쿠스 대교구장 사미르 나사르 대주교는 “고통 속에서 치유의 복음이 자라납니다.”라고 말합니다.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성사와 혼인성사 비율은 75%나 줄었고 매일 장례 미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사르 대주교는 “시리아 교회의 미래는 사제직에 온전히 남아 있다”라며 “사제들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현실에서 미사 예물은 마치 산소 호흡기와도 같습니다.

**ACN은 마로니트 가톨릭 다마스쿠스 대교구 사제 아홉 명에게 미사 예물 535만 원, 그리고 멜키트 그리스 가톨릭 흠스, 하마, 야부르드 대교구장 장아브도 아르바흐 대주교에게는 교구 소속 사제 18명을 위한 미사 예물 1785만 원을 전달할 것입니다.** 아르바흐 대주교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말을 전하며 “여러분의 지원이 우리의 희망을 키워 줍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마로니트 가톨릭 라타키아 대교구장 앙투앙 슈비어 대주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1코린 1,23-25)라는 사도 바오로의 서간을 인용하며 **교구 사제 30명을 위한 미사 예물 2976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슈비어 대주교는 시리아의 그리스도인이 현실 속에서 고통의 언덕을 오르고 있으며 사랑의 끈이 형제자매들과 우리를 서로 이어 준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리아



인류의 빛



멜키트 그리스 가톨릭 그레고리오스 3세 전임 총대주교가 성체를 분배하는 모습



시리아 하마에서 ACN 후원자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는 아르바흐 대주교



#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 작은 축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까지 ACN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파티마에서 오후 4시 반 미사를 드리는데 마치 저를 기다리길래도 한 듯 <사랑의 메아리>가 성당 의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신문이나 잡지에 관심이 있는 저를 이런 방법으로 부르시면서 작은 축제를 하나 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축제는 바로 제가 가진 것을 가져다가 이 일에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 여기 있습니다!

## 그 누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메아리>는 정말 공감이 가고 매력적이며 감동적이고 힘을 줍니다. 여러분의 절실한 요청에 그 누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 여러분의 남다른 노고에 작은 보탬이나마 될 수 있게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랑의 메아리>가 나올 때마다 잘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사랑의 메아리>는 믿음, 진리, 사랑을 한눈에 보여 주는 실로 놀라운 소식지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후원과 감사

수녀원 등 필요한 곳에 기부하고자 70달러를 보냅니다. 제가 드디어 노인 간병인으로 정규직 계약을 맺어 가족을 확실하게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베렌 프리트 신부님도 여러분께서 이루신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 한국 후원자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

보내시는 곳 ① 우편 (04537) 서울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②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③ 휴대폰 문자 010-7475-6440



대전교구 목천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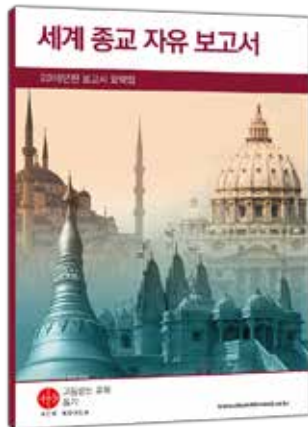
서울대교구 정릉4동성당

## ACN 한국지부, 대전교구 목천성당 및 서울대교구 정릉4동성당 방문

ACN 한국지부는 지난 11월 3일과 4일 연중 제31주일에 천주교 대전교구 목천성당을, 같은 달 17일과 18일에는 세계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서울대교구 정릉4동성당을 방문해 미사를 봉헌하고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는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ACN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며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쟁 때문에 난민이 되어서도 신앙을 증거하는 중동의 형제자매들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 교회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전해 주신 목천본당 운영중 주임 신부님과 정릉4동본당 박선용 주임 신부님 그리고 모든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림



##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 2018

ACN이 2년마다 조사하여 출간하는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의 2018년판 보고서 요약집이 한국어로 발행됩니다.

휴대폰 문자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으로 보고서를 받아보시고 전 세계의 종교 자유 실태에 대해 알아보세요!

###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 요약집 2018

ACN UK 역음 | ACN Korea 옮김 | 210x297 | 40쪽 | 무료 배포 (재고 소진 시까지)

소개영상



ACN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  
[http://bit.ly/ACN\\_Youtube](http://bit.ly/ACN_Youtube)

신청하기

인 터 넷 <http://bit.ly/2018ACNRFR>

문 자 ACN 공식휴대전화(문자전용)

(SMS) ☎ 010-7475-6440

이름, 세례명, 주소, 신청 부수를 문자로 보내 주세요



2018 ACN 심포지엄 <믿는 모든 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 연대의 다리를 함께 놓읍시다!> 참석을 위해 지난 10월 말라위 줌바교 구장 조지 데스몬드 탐발라 주교, 미얀마 주교회의 의장·칼레이교구장 펠릭스 리안 켄 탕 주교, ACN 오스트리아 지부장 헤르베르트 레히베르거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본 행사를 개최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 읽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